

초국가적 이주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정 유 리*

A Study on the Local Identity and life Change of Female Marriage Migrants by Transnational Migration

Jeong, Yu-Ri*

요약 :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은 특정 장소나 위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리적 이동과 새로운 지역으로의 정착을 통해 유연적·유동적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라는 공간적 전환을 통해 구성·재구성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을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으로 유형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 변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주의 실행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한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지역적 특성과 그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이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했다.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문화 정체성의 유지 및 표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의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른 유형보다 생활만족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전히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동화와 순응이 적응과 동일개념으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문화 역량은 문화와 문화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의 다문화사회·다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상호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전세계적 시민성 함양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지역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 지역사회 적응, 문화변용

Abstract : The local identity of a female marriage migrant is not fixed to certain boundary or location, but rather comprised flexibly according to geographical movement or new settlement to different plac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local identity and life change of female marriage migrants that are constituted/reconstituted according to spatial transition, or migr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raits of changes in the period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based on the following categorization: multiculturalism and bicultural identity, assimilation and host country identity, exclusion and origin country identity, marginalization and marginal ident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ile having identical experience in terms of a migration, the local identities of marriage migrant women differed according to individual/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ir respective roles within those traits. In addition, most of females showed passivity in maintaining and exposing their cultural identities of original states. Moreover the life satisfaction change of female marriage migrant that is type of assimilation and host country identity is appeared more than others, through this assimilation and accommodation mean adaptation to female marriage migrant lived in Korea. However the intercultural competences of both marriage migrant woman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acilitate the connection among different cultures. Based on these outcomes, with the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space,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cessity of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for mutual recognition of each culture, thus enabling coexistence.

Key Words : Female Marriage Migrants, Local Identity, Bicultural Identity, Community Adaptation, Cultural Acculturation

1. 서론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든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장소에 근거를 두고 삶을 영위한다(최병두, 2011). 초국적 이주자 또한 일상적 생활은 여전히 국지적

장소에 바탕을 두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 속에서 지역정체성¹⁾을 찾고자 한다. 이때 지역정체성은 장소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며, 영역적 특성을 갖는다. 한 지역 또는 국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Ph.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Post-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jeongyuri2@naver.com)

가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게 되며, 서로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장기영, 2009). 그러나 초국적 이주자의 경우 이주라는 공간적 전환을 통해 기존 지역 또는 국가의 구성원들뿐 만 아니라 이주 후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의 구성원들과도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동일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람과 달리, 초국적 이주자는 이주국과 유입국 사이에서 사회·경제적 관계 및 특성, 가족관계, 삶의 경험 등 여러 요소들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초국적 이주자의 이동성은 단순히 이주국에서 유입국으로의 이동이라는 공간적 확장뿐 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동반한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자의 생활공간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확장은 기존 지역정체성과는 다른 지역정체성으로의 확대·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자는 변화하는 사회·공간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역정체성을 계속해서 구성·재구성하는 것이다²⁾. 공간과 장소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바탕이 되고, 이로 인해 초국적 이주자의 지역정체성은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된다³⁾. 즉, 초국적 이주자의 의식이나 생활양식 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초국적 이주자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시간적임과 동시에 공간적이다(장기영, 2009).

지구·지방화 시대에 초국적 이주자의 정체성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주자가 실제 생활하는 지역사회 공간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어떻게 조화·갈등 하는가에 따라 이주자의 정체성이 유지·변화되어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과 관련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립과 갈등양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초국적 관계의 변화는 이주자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주국 지역사회주민 정체성에 또한 영향을 미쳐 개인적·지역적 차원의 변화를 넘어 국가적·지구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자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이질적 문화정체성으로 인한 문화갈등 요소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고(조민경·김렬, 2010; 현경자, 2012), 이주 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적 이주자의

지역정체성이 이주자의 생활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논의는 결여되어 있다. 또한 초국적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 있어서 정체성의 개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많았음이 지적되고 있다(Cheng, Lee & Martinez, 2006; 조민경·김렬, 2010).

그동안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를 주창하면서도 초국적 이주자의 기존 정체성을 배제한 채 한국적 질서와 문화에 따르도록 요구하여 한국사회의 무조건적인 동화와 편입, 한국문화 정체성의 습득만을 강요해 왔다. 특히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나 유학생과 달리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주민으로 정착하는 결혼이주자⁴⁾에 대한 정책은 더욱더 동화모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최병두, 2012)⁵⁾.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이주국의 거주 환경이나 가치관, 의식 등 이주자의 기존 지역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준국민의 신분을 얻어 사회에 통합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되는 결혼이주여성⁶⁾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유지·변화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배제되었던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 2장에서는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유지·변화하는 이주자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문화변용(cultural acculturation)의 개념과 지역정체성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을 기술하였다. 4장과 5장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거주지역·국적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을 살펴보고, 지역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와 생활만족도 변화를 통해 6장에서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문화변용과 지역정체성의 이론적 논의

Schlempert(2007)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지역들이 정체성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바 있다. 동일한 문화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형화된 형태의 사회적 행동을 하고, 집합행동들의 토대가 되는 공유된 믿음이나 가치들을 창출하여

사회문화적 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양식을 지닌 인간의 이동은 문화의 이동⁷⁾을 동반하며,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은 새로운 문화에서의 적응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주자는 이주를 통해 기존에 생활하던 특정 환경에서 벗어나 상이한 문화 지역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지역 문화에 적응해 나간다(Taylor & Lambert, 1996).

이주라는 삶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내면화된 기존의 정체성 및 본국문화, 이주 후 습득·저항한 현재의 주류문화 간 문화혼합을 경험하고⁸⁾, 조화와 갈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유지·변화시켜 나간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전 자신의 삶을 통해 구축된 기존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 후 유입국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 또한 체득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을 습득·저항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사회적 관계 및 정체성과는 조화·대립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 정체성은 본국과 한국의 구조위에서 행위와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모식화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 변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이때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은 단순히 주류 문화로의 일방적인 순응(accommodation)을 통해 그 문화에서 원하는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한다거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adaptation)’한다기보다 지역사회의 거시적·미시적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문화적 변용(cultural acculturation)’을 이어나가게 된다. Berry(1997)는 초국가적 이주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이주자의 문화적 변화를 문화변용으로 설명하고,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일방향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응(cultural adaptation)⁹⁾과 구분하여 문화변용을 양자적·동태적·역동적 변화 과정으로 보았다.

이처럼 문화변용은 이주 등을 통해 경험한 문화 교류로 인하여 기존의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익숙해진 개인이 다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보여주는 변화 과정과 관련된다. 이주자가 유입국의 문화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촉할 때에도 고유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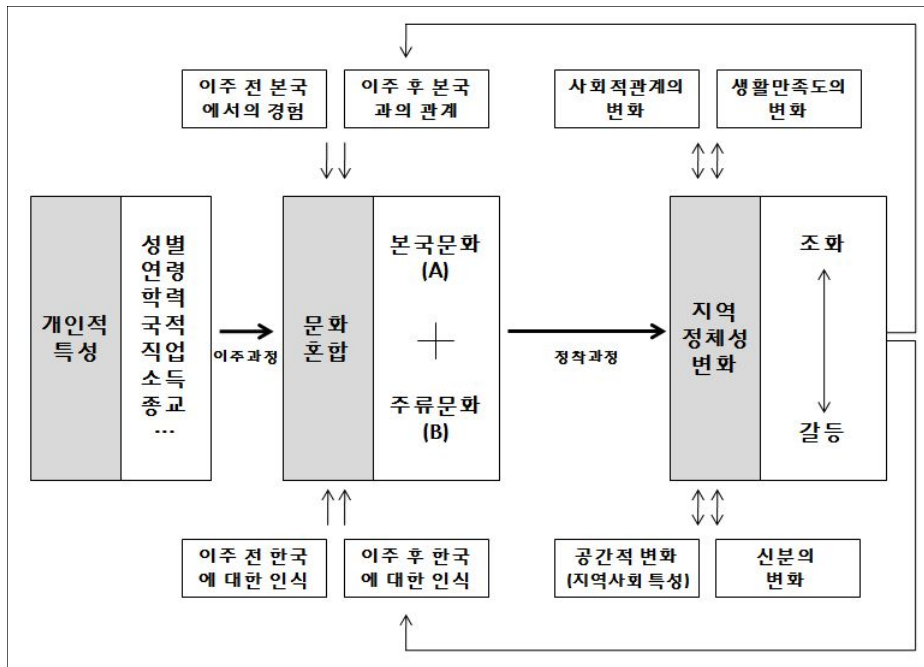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 변화과정

한다는 이차원적 관점을 제시한 Berry(2011)는 이주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정체성의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두 측면을 통해 문화변용 유형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Berry의 문화변용 모형

개인의 태도 사회적 관계		자신의 정체성	
		유지	포기
자신과 주류사회와 의 관계	조화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갈등	분리 (Segreg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자료 : Berry, et al(2011).

첫 번째 유형은 다른 문화집단과 매일 상호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 고유의 정체성도 유지하는 통합(integration)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인 동화(assimilation)는 자신의 본국 문화정체성은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포기하고,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인 분리(segregation)는 동화와는 반대로 개인이 본국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이주자들은 다른 문화집단과의 교류 없이 동질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만의 고유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네 번째 유형인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자신이 지닌 고유문화의 가치를 버렸지만 주류사회 문화에도 참여하지 못하여 어느 문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두 문화 모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는 본국문화에 대한 문화상실을 강요받거나 이주국 사회에서 배제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양쪽 문화 모두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로 기존의 문화를 그리워하고 현재의 사회를 부정하여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지역정체성의 변화는 이러한 문화변용의 과정 또는 문화변용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문화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듯

지역정체성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변용으로서 유연적·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3. 조사 및 분석 방법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및 지역사회 정착과정은 해당 지역 또는 도시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생활 특성 및 지역정체성 변화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초국적 이주자가 초기 정착단계에서 적응과 인지도 및 정보 부족 등으로 동일집단 또는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는 이주자밀집 거주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결혼이주자의 경우 배우자에 의해 공간선택의 범위가 제한된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거주지역이 결정되며, 반드시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정착해야만 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지역적 특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달리하는 도시(대구광역시)와 농촌(경상북도 청도군)지역으로 연구대상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번역된 설문지와 한국어 설문지를 동시에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교회, 시민단체를 통해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Method)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총 154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이나 중복응답 등 분석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36부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적응, 문화변용, 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연구마다 다양하게 사용된다. Suinn et al(1992)와 Kim et al(2001) 등의 연구에서는 본국이나 이주국에 대한 자부심, Martinez & Haritatos(2005)는 문화적 거리감과 문화적 갈등 등의 지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은 조사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특정 지표를 통한 측정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 유형을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

표 2. 세부 조사 항목

구분	측정항목	문항구성	Cronbach's α
유입국	본국과의 관계	사회적지지/연락빈도/송금/방문빈도/이주의향	.634
	본국문화 유지의향	국적유지/문화인식 및 유지형태/생활태도/문화인식태도/문화이질성	
	자녀의 희망 수용문화	희망국적/희망거주지/희망언어/희망문화형태	
이주국	한국과의 관계	사회적지지/연락빈도/자조모임/국제결혼추천	.607
	한국문화 수용의향	국적취득/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 참여/문화인식태도 및 수용형태/주민의식/문화동질성	
	자녀의 희망 수용문화	희망국적/희망거주지/희망언어/희망문화형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문화와의 관계 및 지역 정체성과 본국 문화와의 관계 및 지역정체성의 상관관계가 높은 측정항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 정체성 측정도구를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34$, Cronbach's $\alpha = .607$ 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문화변용으로서 변화하는 지역 정체성과 생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표 2>와 같다.

4.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접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변용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의 유지·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을 한국사회와의 관계 및 본국사회와의 관계에 근거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Berry *et al*(2011)의

문화변용 모형을 일부 수정·보완한 4가지 유형 범주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은 서구 외국인 이주자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다소 다른 차이를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정책 모형은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등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Castles and Miller, 1998; 2003; Martiniello, 윤진 역, 2002; 설동훈 외, 2008; 고숙희, 2009; 최무현, 2008; 박진경 2010; 최병두·김영경, 2011 등).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나 일본, 서구 국가들의 외국인 이주 관련 정책을 분석해 보면, 주변화 모형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최병두,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모형을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모형에 근거하여 다문화, 동화, 배제, 주변화 모형으로 수정하고, 각 유형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이주국 또

표 3.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 유형

구분		본국문화 정체성 및 본국과의 관계	
		높음	낮음
한국문화 정체성 및 한국과의 관계	높음	다문화 (multiculturalism) + 이중문화 정체성 (bicultural identity)	동화 (assimilation) + 한국문화 정체성 (host country identity)
	낮음	배제 (exclusion) + 본국문화 정체성 (origin country identity)	주변화 (marginalization) + 주변문화 정체성 (marginal identity)

자료 : Berry, *et al*(2011) 참조 제작성.

는 유입국 문화정체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 3>과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 유형 범주를 설정하였다.

다문화(multiculturalism)와 이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¹¹⁾ 유형은 본국문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본국사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와의 관계 또한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한국문화와 본국문화를 동시에 수용하여 두 문화 가치를 동일시하고, 서로의 문화를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하여 다양성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동화(assimilation)와 한국문화 정체성(host country identity) 유형은 본국사회와의 관계가 낮고 한국사회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경우, 반대로 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한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가지는 경우를 배제(exclusion)와 본국문화 정체성(origin country identity)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국과의 관계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갈등을 겪어 두 사회 모두로부터의 지역정체성을 상실한 경우 주변화(marginalization)와 주변문화 정체성(marginal identity)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장에서 앞서 제시한 4가지 유형 범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이주와 함께 재구성된 지역정체성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52.2%가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은 26.5%,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은 14.7%,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6.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를 통한 사회적 통합 정책을 전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동화주의 성향이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 정체성 및 한국과의 관계 정도가 높은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유형에 속한 결혼이주여성 또한 양극단에 치우쳐 완전히 이주국 중심적이거나 유입국 중심적이기 보다는 두 문화를 적절히 혼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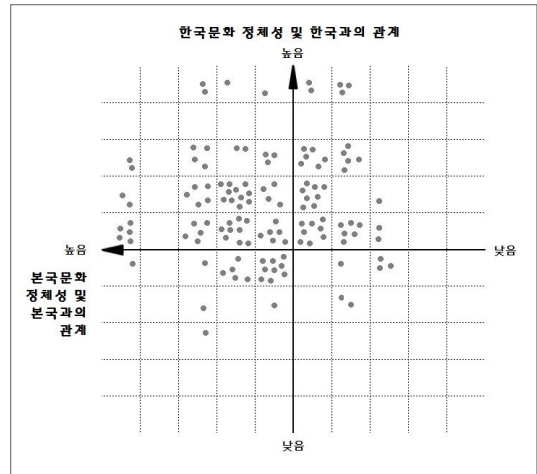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의 지역정체성

1)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정체성

모든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라는 사회·공간적 변화를 경험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배경에 따라 상이한 문화변용 양상과 지역정체성 변화를 경험한다. 동일한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출신국의 언어, 문화, 생활습관, 가치관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이주여성의 겪는 갈등의 폭은 증가하며, 갈등의 증가는 곧 한국사회와의 단절 및 본국문화 정체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역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Motgomery(2012)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들의 가치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높아 새로운 문화나 사회가치 등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장선, 2012). 본 연구에서 또한 3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의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비율이 29세 미만 연령층 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출신국 이미지와 평판 혹은 결혼이주의 동기는 지역사회주민 및 가족으로부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체성 변화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표 4. 개인적 특성과 지역정체성

(단위: 명, %)

구 분		지역정체성				전체	x ² (p)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나이	29세 미만	45(52.9)	26(30.6)	9(10.6)	5(5.9)	85(100.0)	-
	30세 이상	29(55.8)	10(19.2)	11(21.2)	2(3.8)	52(100.0)	
거주기간	5년 미만	31(50.0)	19(30.6)	7(11.3)	5(8.1)	62(100.0)	8.681* (.038)
	5년 이상	40(54.1)	17(23.0)	13(17.6)	4(5.4)	74(100.0)	
출신국	베트남	40(46.5)	25(29.1)	14(16.3)	7(8.1)	86(100.0)	-
	일본	8(88.9)	1(11.1)	0(0.0)	0(0.0)	9(100.0)	
	중국	10(58.8)	4(23.5)	2(11.8)	1(5.9)	17(100.0)	
	캄보디아	6(50.0)	4(33.3)	1(8.3)	1(8.3)	12(100.0)	
	필리핀	4(57.1)	1(14.3)	2(28.6)	0(0.0)	7(100.0)	
	기타	3(60.0)	1(20.0)	1(20.0)	0(0.0)	5(100.0)	
배우자와의 만남	연애 및 직접만남	8(57.1)	4(28.6)	1(7.1)	1(7.1)	14(100.0)	-
	행정기관의 주선	5(62.5)	2(25.0)	1(12.5)	0(0.0)	8(100.0)	
	중교단체의 소개	5(71.4)	2(28.6)	0(0.0)	0(0.0)	7(100.0)	
	아는 사람의 소개	18(56.3)	7(21.9)	7(21.9)	0(0.0)	32(100.0)	
	국제결혼중개업체	34(46.6)	20(27.4)	11(15.1)	8(11.0)	73(100.0)	
	기타	1(50.0)	1(50.0)	0(0.0)	0(0.0)	2(100.0)	
본국에서의 한국교육	받음	18(60.0)	4(13.3)	8(26.7)	0(0.0)	30(100.0)	10.687* (.014)
	받지 않음	53(50.0)	32(30.2)	12(11.3)	9(8.5)	106(100.0)	

*p<.05

조사결과에서 출신국¹²⁾과 배우자와의 만남의 차이는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혼이주여성 특성은 거주기간과 본국에서의 한국교육 여부였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입국초기에 한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위해 5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보다 동화와 한국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의 경우 5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이 5년 미만 거주한 결혼이주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반드시 나이와 거주기간이 비례하지는 않으나 나이가 많고 한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적응을 위한 한국사회로의 무조건적인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보

다는 자신의 모국에 대한 지역정체성 또한 높아져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혹은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주 전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비율은 높고,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문화 및 언어를 이주 전에 습득함으로써 입국초기단계에서 무조건적인 한국문화의 수용이 필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2) 지역적 특성과 지역정체성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과 장소의 특성은 거시적으로는 경제의 세계화 과정과 국가의

정책, 미시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체성과 생활방식 등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지역적 차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과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역 특성과 지역정체성을 살펴본 결과,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보다 농촌지역에서 다문화와 이종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을 나타내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여러 문화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유형 모두는 현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보다 지역공동체 의식 및 언어와 문화, 인종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선입견과 부정적인 시선은 결혼이주여성의 무조건적인 한국사회로의 편입·순응을 요구한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인구의 구성이 동질적

이며, 지역사회 주민들 간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질적 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보다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일한 동질적 문화정체성 및 소속감을 공유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은 도시지역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더 높은 한국문화 정체성을 나타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태도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거나 적응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사회 주민의 태도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은 배제를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이 그렇지 않은 결혼이주여성 보다 다문화와 이종문화 정체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5).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가적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잊어버림의 정치’, ‘배제의 정치’를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표 5. 지역적 특성과 지역정체성

(단위: 명, %)

구 분		지역정체성				전체	x ² (p)
		다문화와 이종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현재거주 지역	도시지역(대구)	37(45.7)	21(25.9)	14(17.3)	9(11.1)	81(100.0)	8.673* (.034)
	농촌지역(청도)	34(61.8)	15(27.3)	6(10.9)	0(0.0)	55(100.0)	
지역사회 주민의 태도	배제를 느낌	37(44.6)	24(28.9)	17(20.5)	5(6.0)	83(100.0)	26.870** (.008)
	그렇지 않음	34(64.2)	12(22.6)	3(5.7)	4(7.5)	53(100.0)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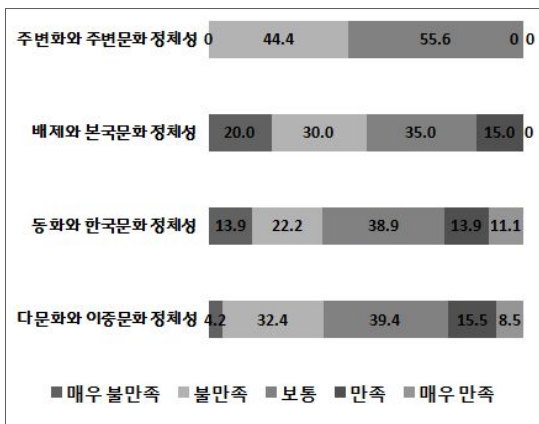


그림 3. 의료지원 및 복지지원 만족도



그림 4. 국적취득 또는 비자 갱신의 어려움

서 배제되는데(박배균·장건화, 2004), 이러한 지역 사회 주민으로부터의 배제감이나 차별적 태도 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 사회로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은 정부 및 지자체의 법이나 조례 등 지역사회 정책과 지원제도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 및 복지지원에 만족하는 경우 또는 국적취득이나 비자 갱신 등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 배제와 한국문화 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그림 4).

3) 국적과 지역정체성

2015년 1월 1일 기준 결혼이민자 147,382명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는 92,316명으로 62.6%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민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경계이며,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진정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폴(Pohl)은 지역정체성의 강도(intensities)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개인의 지역과 관련 행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낮은 단계는 한 개인이 특정한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며, 두 번째는 개인이 지역에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고 느끼는 단계다. 세 번째는 지역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표명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는 그 지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단계를 말한다(이강형·문종대,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아질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를 국민으로 표명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국적취득을 통해 ‘국민’이 된 결혼이주여성으로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 간 지역정체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으로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주여성 간 지역정체성의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

났고, 유입국 지역정체성의 강화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미칠 것으로 예상한바와 달리 지역정체성과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유무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에 기인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지역정체성 변화에 따른 자발적 국적 취득 보다는 자녀의 출생신고, 입학 등과 관련하거나 남편 및 시댁의 요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이유 등이 국적취득 이유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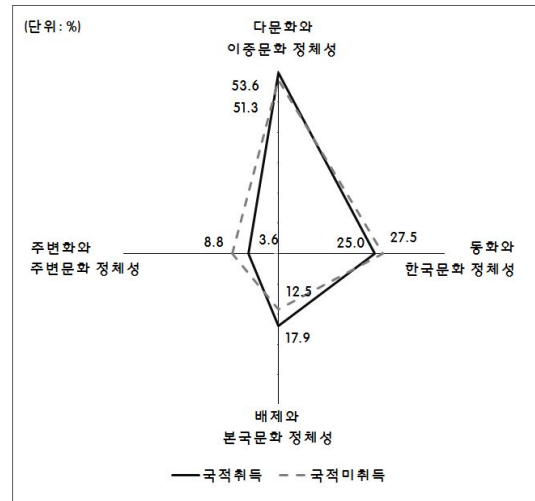


그림 5. 국적과 지역정체성

5.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

1) 지역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변화

이주자의 정체성은 전통적 장소나 공동체 사회에서 단순히 한 개인이 얻게 되는 경험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개방된 사회공간에서 타자와의 부당한 관계 속에서 경쟁적·갈등적 투쟁을 통해 구성·재구성 된다(Choi et al., 2011; 최병두, 2012).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후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적·심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며(Lazarus, 1976), 집단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관계 변화를

경험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과 지역정체성의 변화는 특정문화(혹은 다중문화)에 더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며,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선호하게 하는 등 이주국 또는 유입국과의 관계 변화를 동반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변화는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며, 지역정체성의 변화는 사회적 상호행동을 통한 필요충족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변화는 상호 연관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참여여부를 제외한 거주지역,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지역사회 자조모임 참여만족도, 지역사회 주민과의 연락빈도가 지역정체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결혼이주여성 및 지역사회주민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역정체성의 형성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

임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역사회 주민과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서 모국문화를 공유함과 동시에 소통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억압을 해소하여 정서적·심리적 안정감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참여만족도와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연락빈도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자조모임을 주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의 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참여를 통해 그들의 감정, 동기, 태도, 가치관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 유형별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이주 후 변화된 지역정체성은 이웃과의 관계 변화를 동반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유형이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이 13.9%의 비율을 나타냈다.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유형은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성이 원만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유형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가장

표 6.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변인과의 상관관계

(N=136)

구 분	지역정체성	거주지역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참여여부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지역사회 자조모임 참여만족도	지역사회 주민과의 연락빈도
지역정체성						
거주지역	-.235**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참여여부	.023	.020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429**	.294**	.423**			
지역사회 자조모임 참여만족도	.320**	.356**	.522**	.671**		
지역사회 주민과의 연락빈도	.199*	-.309**	.173*	.187*	-.218*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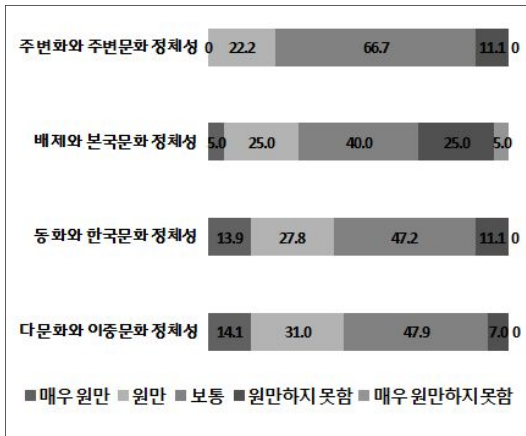


그림 6.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성

많은 사회적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0.0%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유형별 사회적지지체계는 모든 유형에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사회적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지지체계로 볼 수 있는 종교단체, 지역사회지원단체, 직장동료, 지역사회주민, 다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지지체계는 각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은 다른 유형의 결혼이주여성 보다 다른 결혼이주여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는 낮은 반면, 지역사회지원단체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지원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화주의적 이주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그림 7).

2) 지역정체성과 생활만족도 변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적응 및 정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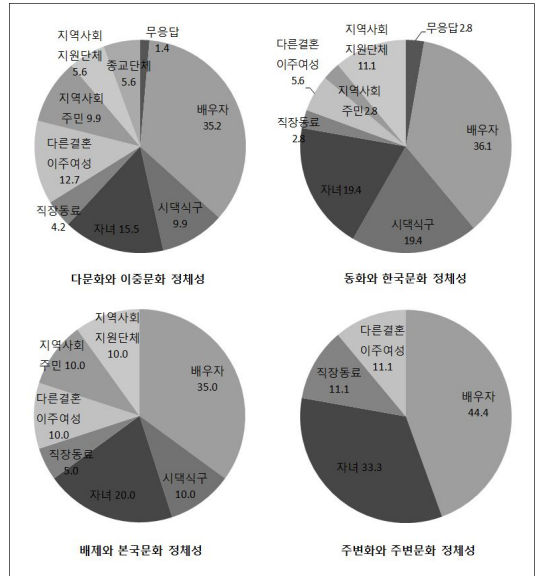


그림 7. 사회적지지체계

에서 자신의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와 관련된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와 지역정체성이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며, <그림 1>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상호관련적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과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상호관련적 관계로 설정하고, 지역정체성의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다문화와 이중문화정체성에 해당하는 통합유형이 결혼이주자의 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Gil·Vega·Dimas, 1994, Phinney *et al.*, 2001, 양옥경, 2009, 노하나, 2007, 박주화·정진경, 2007, George·Helga·Jeroen, 2013 등).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표 7. 지역정체성 변화에 따른 이주 직후와 현재의 생활만족도 변화

구 분	N	이주 직후		현재		증가율 (%)	df	t
		M	SD	M	SD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71	3.29	.673	3.57	.567	8.70	70	-4.117***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36	3.29	.548	3.63	.394	10.22	35	-3.512**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20	3.11	.654	3.38	.483	8.52	19	-2.381*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9	2.67	.433	2.81	.481	5.42	8	-1.982

***p<.001, **p<.01, *p<.05

연구결과와 달리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이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화 유형이 이주국에서의 적응 및 생활 만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Berry, 2008, Verkuyen·Kwa, 1994, Amit, 2009, 신경희, 2004, 정진경·양계민, 2004, 권복순·차보현, 2006, 장은애·최영, 2010 등).

지역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은 모두 이주 직후와 현재 만족도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의 경우 모두 이주 직후와 비교했을 때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의 만족도는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은 이주 직후와 현재 만족도가 모두 보통 이하로 매우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여전히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보다는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이 형성되었을 때 한국인과 동일시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증가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감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무조건적인 동화와 순응이 곧 적응이라는 동일개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중문화 정체성 또는 다중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간과 장소를 이동함에 따라 지역이라는 문화의 경계에서 정체성의 조화·갈등을 통해 구성·재구성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을 논의하고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지역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의 실행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한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특성, 기존사회에서의 경험,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그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이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문화 정체성의 유지 및 표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 및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화와 통합을 선호하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본국문화 정체성 유지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갈등 요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국문화를 표현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보였다. 이로 인해 배제와 본국문화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 유형 또한 어느 문화 양극단에 치우치기보다 한국문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본국문화를 절충하여 두 문화를 적절히 혼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및 지역정체성의 변화에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의 참여여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에 대한 참여만족도와 사회적지지체계의 유무, 지역사회 주민과의 연락빈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확장과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및 지역사회주민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체성 변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생활만족도의 증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의미한다. 즉, 생활만족도의 증가는 결혼이주여성이 변화된 환경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충족되고, 정체성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지방화 시대에 결혼이주여성의 이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¹³⁾은 두 문화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이주국과 유입국의 통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는 한국문화를 중심으로한 결혼이주여성의 무조건적, 일방적 적응과 지역정체성을 요구하며, 한국문화 및 지역사회 내로 포섭되지 못한 배제된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과 갈등을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귀결시켰다.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은 자녀의 부적응 또한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공간적 갈등의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며 한국문화 정체성의 습득을 돕고, 이중문화 혹은 다중문화를 상호인정하여 공존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시민성 함양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또한 이중문화 혹은 다중문화 정체성을 형성·유지 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임의적으로 지역정체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점은 비약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시기별로 다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박신규, 2008), 국제결혼의사결정 과정, 이주과정, 입국 직후, 현재 등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성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 시기별 지역정체성의 변화는 추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주

- 1)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지위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의식을 형성하면서 나는 누구이다라는 자의식을 형성한다. 정체성은 사회·공간적 맥락이나 상호관계, 내부적 인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서 부여된다(피터 버거, 2001; 이춘호, 2014).
- 2) 이는 정체성이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생성 과정에 있는 구성적 개념이기 때문이다(최병두, 2011; 이춘호, 2014). 즉 정체성은 사회·공간적 맥락과 타

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되며, 동적이며 과정적인 것이다. Schlesinger(1987)는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하나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 소속감과 차이의 확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 구성의 요소가 계속 맞물려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조항제, 2006).

- 3) 최재현(2005)은 세계화시대에는 특정 지역과 장소의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 4) 본 연구에서의 결혼이주자는 국가간 문화적 차별성을 가지는 국제결혼이주자를 명시한다.
- 5) 최병두(2012)는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모형을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주변화 모형으로 구분하고, 결혼이주자의 경우 정부 정책이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민과 평등하게 대우하러하는 동화모형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 6) 본 연구에서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유형의 이주자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며, 개별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을 결혼이주자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남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결혼이주여성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다.
- 7) 지리학에서는 이러한 이동을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로 설명하며, 인구이동은 상호접촉을 통한 문화전파를 초래한다.
- 8) 이러한 정체성의 구성은 경계(boundary)에서 종종 경쟁적 요소들에 의해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변화된다. 문화지역 안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는 관계형성을 통한 연결망을 통해 끊임없는 상호행동 하고, 이것은 곧 문화 또는 정체성을 형성·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 9) 문화적응과 문화변용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서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문화적응은 이주자가 다른 환경에 정착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정착 과정에서 새로운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익숙해져 일방향적으로 나타나는 정태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국의 가치관이나 소속감 등을 버리고 새로운 이주국의 가치관이나 행동 특성으로 대체되는 과정인 문화동화(assimilation)의 개념과 뚜렷한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Patel *et al.*, 1996). 반면 Redfield *et al.*(1936)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변용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의 집단들이 지속적인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본래의 문화형태가 한 집단 또는 양쪽 집단에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10) 문화변용의 개념은 단순히 정체성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두 문화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의 심리적·문화적 변화, 즉 이주 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변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화변용으로서의 정체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주자의 지역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11) 개인은 이중문화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두 문화 요소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하나의 혼종적(blended) 방법과 두 문화적 프레임을 전환하는 교차적(alternating) 방법이 그것이다. 교차적 방법에는 Alternation model of Biculturalism과 Blended model of Biculturalism이 있다(Kankesan T., 2010).
- 12) 출신국에 따른 지역정체성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88.9%가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을 나타냈다. 이 경우 사례자는 경제적·강제적 동기가 아닌 통일교를 통한 축복결혼 또는 유학 등을 통한 자발적·종교적 동기에 따른 국제결혼 결정과정을 보였고, 두 국가 모두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 13) 이문화 역량이란 두 문화 속에서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이처럼 두 문화 혹은 두 사회 속에서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은 두 사회를 연결짓는 '문화 중개자'로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장미혜 외, 2008; 장남혁, 2012).

문헌

- 박배균·장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박신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40-53.
- 이강형·문종대, 2006, 지역민들의 ‘지역 정체성’이 지역뉴스 시청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6(3), 342-377.
- 이춘호, 2014, 제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1(3), 143-180.
- 임선일, 2010,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이담.
- 장기영, 2009, 지역사회의 구조변동과 지역신문의 지역정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장남혁, 2012, 이주로 형성된 이중문화 환경을 지원화하는 방안 연구: 한필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29, 93-123.
- 조민경·김렬, 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89.
- 조향제, 2006, 지역방송의 지역성 변화: 개념적 접근, 한국언론정보학보, 34, 275-305.
- 조혜영,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 최병두,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지리학: 연구 동향과 주요 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 65-97.
- 최병두, 2012,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1), 13-36.
- 현경자,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64(2), 241-271.
- 홍장선, 2012,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 미디어 이용과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et al.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Allyn& Bacon, 291-326.
- Berry, J., Poortinga, Y., Breugelmans, S., Chasiotis, A. & Sam, D., 2011.,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kesan, T., 2010, Understanding Bicultural Identity and its Impa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imination and Well-being, PhD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 Kim, C., Laroche, M. & Tomiuk, M. A., 2001, A measure of acculturation for Italian Canadians: scale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5, 607-637.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Y.: Mcgraw-Hill.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bropologist, 38, 149-152.

- Schlemper, M. B., 2007, From the Rhenish Prussian Eifel to the Wisconsin Holyland: immigration, identity and acculturation the regional scal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3, 377-402.
- Suinn, R. M., Ahuna, C. & Khoo, G., 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41-1046.
- Taylor, D. M. & Lambert, W. E., 1996, Language in the lives of ethnic minorities: Cuban american families in miami. *Applied Linguistics*, 17(4), 477-500.
- 교신 : 정유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eongyuri2@naver.com)
- Correspondence : Yuri Jeo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201, Daegudae-ro, Jillyang,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e-mail: jeongyuri2@naver.com)
- (접수: 2016.01.18, 수정: 2016.02.20, 채택: 2016.02.25)